



## 간호에서의 보살핌에 대한 철학적 탐구\* - 리코르(Ricoeur)의 이야기 윤리에 기초하여 -

공 병 혜<sup>1)</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간호에서 보살핌(care, caring)은 지금까지 간호학자들에 의해 간호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간호의 도덕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개념으로 간주되어 왔다(Morse, 1990; Watson, 1988, Fry, 1989; Edward, 2001). 특히 Benner와 Wrubel(1989)은 Heidegger(1984)의 존재의 해석학에 기초하여 보살핌은 자기 관심과 염려라는 인간의 존재방식의 특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간호에서의 인간이해의 존재론적 방식이라고 하였다. 또한 Watson(1988)과 Gadow(1985)는 보살핌을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공감, 동정심 등의 감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지시키는 도덕적 의무라는 간호윤리의 핵심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의 Nerheim(2001)은 Ricoeur(1996)의 자기 해석학에 근거하여 관계 윤리로서 간호에서의 보살핌의 모델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간호윤리학자들은 도덕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추론을 중시하는 원칙주의 윤리와는 대비되어 도덕적 품성과 인간관계의 능력을 강조하는 덕 윤리라는 테두리 내에서 보살핌의 윤리적 가치를 특징짓고자 하였다(Gadow, 1996; Gastmans, 1999). 거기서 특히 이들은 인간 상호성과 타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과 그리고 도덕적 감수성(moral sensibility)을 중시하는 보살핌의 윤리적 입장에 기초하여 간호실천의 도덕적 특성과 내용을 근거 짓고자 하였다(Pellegrino, 1985; Gadow, 1989;

Fry, 1988; Nortvedt, 1998).

따라서 위에서 간호학자들에 의해 서술된 간호실천의 핵심적 개념으로서의 보살핌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에서의 인간이해의 방식과 윤리적 태도를 근거지울 수 있는 철학적 탐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특히 인간이해의 방식으로서 인격(person)의 정체성(identity)과 그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는 간호에서의 보살핌의 태도로서 전제되어야 하는 철학적 기초이다. 왜냐하면 인간생명의 시초에서부터 죽음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격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대상자의 '자기(self)로서의 인격을 보호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것은 보살핌을 위한 근본적인 윤리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나 죽어가는 환자, 식물인간 그리고 치매와 정신적 장애를 지닌 대상자를 보살핌에 있어서 자기로서의 인격의 정체성을 어떻게 존중해 주고 배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보살핌의 실천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간호철학에서는 인격에 대해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인간의 자기 이해를 위한 이야기적 이해와 그리고 이에 근거한 이야기 윤리가 핵심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Edwards(2001)는 간호에서의 보살핌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인간이해의 방식은 이야기를 지닌 인격으로 개인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것은 인격의 정체성을 구성해주는 존재론적 보살핌(ontological care)의 차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Gadow(1996), Meininger(2005) 등은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사이의 보살핌의

주요어 : 보살핌, 인격의 정체성, 이야기윤리, 존재론적 보살핌

\* 본 논문은 2004년 학술진흥재단 지방대 육성지원금에 의해 수행되었음(KRF-2004-002-A00021)

1)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투고일: 2005년 7월 13일 심사완료일: 2005년 10월 28일

관계를 삶의 이야기를 말 하고 듣고 함께 엮어가는 윤리적 이야기(ethical narrative)차원에서 전개시키고 있다. Gadow (1996, 1999)에 따르면 윤리적 이야기란 윤리적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인간관계의 윤리로서 간호에서의 보살핌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요소라는 것이다. 이때의 이야기는 간호사가 혹은 대상자가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함께 추구하는 좋은 삶을 향해 함께 상호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이야기인 것이다. 특히 윤리적 이야기는 임상상황에서의 개별성과 취약성을 드러내며 대상자의 자율성(autonomy)을 존중해 주고 동시에 간호사의 선의의 온정주의적 입장이 함께 작용하여 구성된 좋은 삶을 지향하는 내러티브인 것이다(Gadow, 1996). 이와 같이 보살핌의 관계가 지닌 이야기의 윤리적 차원을 간호학자들은 이야기를 매개로 자기의 해석학을 전개시킨 Ricoeur의 이론에 의존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Gastmans (1999)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보살핌의 도덕적 태도란 바로 좋은 삶을 지향하는 총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그들이 처한 근경을 이해하여 이에 대한 공감의 과정을 통해 그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보살핌의 태도는 간호사가 탁월한 간호실천을 위해 갖추어야 할 덕(virtue)이며, 이것은 대상자를 이야기를 지닌 존재로서 이해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Kong, 2004).

그렇다면 과연 간호학자들이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는 Ricoeur의 이야기를 매개로 한 자기의 해석학이란 무엇이며, 그것의 어떠한 특성이 과연 간호에서의 이야기적 인간이해와 보살핌의 윤리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은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매개한 '자기'(Selbst, self)로서의 인격과 자기 존중에 기초한 그의 윤리를 탐구함으로써 응답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Ricoeur의 윤리가 인격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를 보살핌에 있어서 어떠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Ricoeur의 인격의 정체성과 그의 윤리는 어떻게 간호에서의 보살핌의 태도의 이론적 기초로서 이해될 수 있는가? 그는 인격의 정체성을 바로 이야기를 통해 매개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의 해석의 차원에서 접근한다(Ricoeur, 1996). 개인의 정체성이란 어떤 것을 통해 또는 어떻게 나의 자기, 너의 자기 혹은 그의 자기로서 여길 수 있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가를 말한다(Yun, 2003). 여기서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자기의 정체성은 바로 각자가 말하는 주체로서의 '자기'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타자가 말하는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 인물의 정체성을 구성함을 의미한다(Jeong, 1999). 타자와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각자의 삶의 이야기는 각자의 인격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며 사회 속에서 타자와 함께 타자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이 좋은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지향성을 지닌다(Ricoeur, 1996; Schnell, 1999). 이러한 이야기는 개인의 삶에 대한 회고뿐만이 아니라 좋은 삶을 향한 계획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윤리적 차원을 지닌다. Ricoeur(1989)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한 자기이해의 지평을 좋은 삶을 추구하는 자기 존중의 실현으로서의 타자를 위한 배려의 윤리로 확장시켜 나간다. 거기서 그는 자율적 주체로서의 인격체뿐만이 아니라, 배아나 태아 그리고 무의식 환자나 식물인간, 치매환자 등 타자화 된 인격체까지 포괄하는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려 깊은 실천적 지혜를 강조하는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Ricoeur의 이야기를 매개로 한 인격의 자기 해석학과 배려의 윤리는 바로 간호에서 이야기를 통해 환자의 인격의 정체성을 이해하여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보살핌의 윤리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글은 우선 Ricoeur의 인격과 이야기적 정체성에 대한 이론과 그리고 자기존중의 윤리적 지평위에서 전개된 타자를 위한 배려의 윤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대상자의 인격의 정체성을 구성해 주는 존재론적 보살핌과 자기 존중에 기초한 타자를 위한 배려의 윤리가 간호에서의 보살핌의 윤리적 태도로서 실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탐구해 보기로 하겠다. 결국 이 글은 Ricoeur의 이야기 윤리가 보살핌을 위한 철학적 기초로서 취약한 신체적 존재지만, 삶의 이야기를 가진 고유한 인격체를 돌보는 윤리적 태도를 반성해 보는 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 숙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Ricoeur의 이야기적 정체성과 윤리

### 인격의 정체성과 이야기

오늘날 인격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는 대부분 인격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거기서 특히 자의식과 기억이라는 심리적인 기준이나 시간과 공간의 동일성에 따른 신체적인 기준에 대한 논쟁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Yun, 2003). 그러나 Ricoeur(1996)에게서 인격의 정체성은 '나는 정말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으며, 시간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보살피는 관심과 염려 속에서 획득되는 자기 해석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자기 해석은 바로 이야기를 매개로 하여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기 체험은 언어화되었을 때, 이야기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으며 타자와의 소통이 가능하며, 그래서 인간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활동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자기 존재를 염려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Yun, 2003). 이러한 자기 해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

하는 활동은 바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지속되는 시간적 변화와 그리고 타자와의 상호 호혜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이데거(Heidegger, 1984)의 존재의 해석학에 있어서 인간 현존재의 의미를 자기에 대한 관심과 염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자신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시간의 지평위에서 해명되어야 하는 과제로 삼는다. 반면에 Ricoeur에게서 자기 존재는 직접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 한 이야기의 지평위에서 해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체험과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야기된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Ricoeur(1996)는 우선 인간 현존재의 자기 해석으로서 인격의 정체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관계가 있는 인격의 자체동일성(idem, Selbstigkeit)과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과 관계가 있는 자기동일성(ipse, Selbstheit)을 구분한다. 그리고 그는 이 둘이 상호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 지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이에 대한 변증법적 종합으로서의 이야기적 정체성을 제시한다. 자체 동일성이란 우선 단수로서의 수적 동일성과 두 존재가 서로를 대체될 수 있는 질적 동일성, 그리고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인간이 탄생과 성장, 죽음에 이르는 전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연속성으로서의 동일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자체동일성은 “생물학적 개인이 지닌 유전자 코드의 지속성”일 것이지만, 이것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인간 존재자에게 체험되는 사실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거나 확인되는 것이다. 자신에게는 물론 타자에게도 체험되는 자체동일성이 있는 데, 이것은 성격의 지속성으로서 인간개인의 자체동일성의 양태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격은 유전자처럼 객관적이거나 익명적이지 않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의 성격으로 나를 혹은 너의 성격으로 너를 재확인하고, 각자의 성격으로 각자를 재확인할 수 있다. 그 성격이란 바로 한 개인을 식별해내고 인지할 수 있는 그 개인의 습득된 지속적인 기질들(dispositions)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Ricoeur(1996)에 따르면 과거로부터 축적되고 침전된 성향들이나 기질들로 구성된 성격을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접근하는 것은 미래를 예견하여 계획하며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정체성의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개인의 성격이 자체동일성라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자기성의 구체적인 양태는 바로 “자기 유지”(Selbst-Standigkeit)로서의 “약속의 준수”(Wort-Halten)이다. 여기서 자기성이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각자의 자기다움이다. 이러한 자기 유지로서의 약속의 준수는 자기 자신은 물론 타자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 욕구와 내 의견 그리고 내 경향이 변화한다 해도 내가 이미 한 말에 충실해서 이를 실행하는 약속의 이행 속에서 오히려 ‘자기 지속’을 할 수 있다. 즉, 자기와 타자에게서 자기가 한 말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자기를 지속시키는 것은 물론 타자가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자기가 다른 자기와 맺는 관계 그리고 그 자기와 다른 모든 사회적 관계의 지속성과 그 관계의 유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약속의 실행을 통해 나의 미래를 향한 실존을 형성해 나감은 물론, 타자가 나에게 거는 기대와 소망을 동시에 구축해 나가는 고도의 상호 인격적이고 윤리적 행위라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성격이라는 자체동일성과 약속을 준수하는 자기동일성은 이야기 속에서 결합이 되어 인격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이것은 인간주체의 자기 이해와 자기 인식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한 이야기들에 의해 조명되고 얻어진다는 그의 해석학적 이념을 보여준다(Yun, 2002). 그에게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이해를 매개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이며, 따라서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정체성, 즉 각자의 누구임이 파악되는 것이다. 각자 자기의 삶의 이야기에서 과거로부터 습득된 지속적인 성격을 말할 때 자신은 기억할 수 없는 타자의 가치나 행동 등이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끼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나의 삶에서 나 자신이 기억할 수도 없는 자신의 출생이나 죽음의 경험은 자신과 삶을 함께 한 타자에 의해 자기의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야기적 정체성은 과거부터 축적된 성격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행위의 가능성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망들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면서 자기가 유지되고 형성된다. 즉 이야기는 그 인물의 고착된 성격을 넘어서 진정한 삶에 대한 이상을 지향함으로써 그 인물을 사랑받거나 존경받을 만한 특성을 가진 인물로 만든다. 이렇듯 이야기를 통해 획득되는 인격의 정체성이 바로 이야기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이며, 이것은 성격이라는 자체동일성과 약속 이행이라는 자기동일성이 변증법적으로 서로 연결됨으로써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Ricoeur(1996)가 이야기적 정체성의 본질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야기란 ‘줄거리 만들기’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미토스(Mythos)로서의 사실의 정돈인 것이다. 즉 줄거리 만들기란 사건과 행위들을 이야기 속에서 선택하고 정돈하여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 전체적이고 완전한 행동의 시간적 통일성 아래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일상적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이질적인 것들은 줄거리 안에서 종합되어 형성되어 행위 하는 인물(Figur)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즉 줄거리란 부조화와 조화 사이의 변증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조화란 행위를 결합시키는 일종의 ‘질서의 원칙’이며,

부조화란 시원적 상황에서 종말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운명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는 조화와 부조화 사이를 매개하고, 이질적인 것을 종합하는 기술을 구성이라고 말한다(Ricoeur, 1996).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이야기의 줄거리가 만들어지면서 인물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의 줄거리 짜기를 통해 그 인물의 과거로부터의 지속적인 성격과 자기지속을 위한 약속준수라는 자기 지속이 변증법적으로 연결되면서 이야기 속에서의 인물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적 정체성은 확고부동하고 완벽한 정체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줄거리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며, 나아가 한 삶에 대해 상반된 줄거리를 짜는 것도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삶의 이야기라는 서술형식도 불완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야기적 정체성은 끊임없이 형성되고 해체될 수 있다. 이야기적 정체성은 확고부동의 정체성이 아니고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정체성인 것이다(Kim, 2002).

Ricoeur(1996)에 따르면 이야기 속에서 과거로부터 습득된 성격과 약속의 준수라는 자기 유지가 서로 결합하여 형성되는 이야기적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윤리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자기’를 유지한다는 것은 본래 타자 앞에서 내가 말한 나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행위의 책임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말로 약속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나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Ricoeur, 1996, pp.202-203). 이 때의 책임은 바로 상호 신뢰에 기인하는 것이다. 결국 이야기 속에서 인물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기가 말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자기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인간 삶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는 개별적 행위를 좋은 삶을 위한 목적을 향해 통일적으로 재구성하면서 개인의 삶에 대한 회고뿐만이 아니라, 삶의 계획과 전망과 소망을 제시하는 삶의 통일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야기의 통일성은 바로 좋은 삶을 향한 윤리적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Ricoeur(1996)에 따르면 “이야기하는 기술은 그것의 근원적인 형식에서 경험들을 교환하는 말하는 기술”이며, 그것은 “과학적 관찰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의 일상적인 연습이다”(p.201) 즉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경험을 교환하면서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윤리적 목적과 행위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면서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윤리적 목적과 도덕적 규범에 대해 반성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허구적으로 구성된 문학작품, 즉 소설은 일종의 상상의 거

대한 사유의 실험실이며, 거기서 행하는 사유의 실험들은 선과 악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윤리적 탐사라고 한다(Schnell, 1999). 허구적 이야기는 일상의 삶과 거리를 두고 삶의 계획, 행위, 윤리적 요구나 욕망,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개인적 가치에 대해 자유롭게 윤리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상상력의 공간이며, 이러한 사유의 활동은 실제로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도 일어나는 것이다(Meininger, 2005).

## 자기 존중과 배려의 윤리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Ricoeur의 이야기하기는 좋은 삶을 지향하는 윤리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연습공간으로서 윤리학을 준비하는 곳이다(Schnell, 1999). 이야기 속에서의 자아의 삶의 역사는 각자의 자기 이해에서 출발한 좋은 삶에 대한 전망과 규범을 포괄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self)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 그의 윤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Ricoeur(1996)에 있어서 윤리는 항상 ‘지향’ 또는 목표에 따른 삶의 이상, 신념, 소신, 바람 등과 관계하며, 도덕은 ‘규범’(Norm) 또는 규칙에 따른 의무나 당위성의 의미를 지닌다. 그의 윤리학은 “정의로운 제도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좋은 삶을 지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p. 219). 따라서 그의 윤리학은 윤리적 목표를 구성하는 ‘좋은 삶’과 ‘타자와 함께 하는’ ‘타자를 위한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되며, 자기 존중과 타자를 위한 배려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 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윤리적 목표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좋은 삶에 대한 추구인데, 이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는 자기에 대한 관심과 이로부터 나온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자기 관심으로부터 나온 좋은 삶이란 일종의 자기 삶의 이상이며, 이러한 삶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을 향해 구체적으로 선택된 실천들 간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합일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실천적 지혜(phronesis)인데, 그것은 바로 좋은 삶에 합당한 행위들을 숙고하여 선택하는 능력인 것이다(Prammer, 1999). 거기서 ‘자기’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점이 좋은 삶을 위해 아끼고 소중히 여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가 바로 자기 존중이다. 자기 존중은 자기의 성취(Leistung)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행위의 능력(Fähigkeit)에 있다고 한다(Ricoeur, 1996, p.221). 이러한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행위의 능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타자와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Ricoeur(1996)는 자기 존중의 근거인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에 대한 관심과 타자에 대한 배려가 서로 상호연결이 되는 지 보여주하고자 하며, 그래서 그가 우선적으로 주목하

는 것이 바로 우정이다.

그러면 우정이란 무엇인가. 우정은 타자와 더불어 타자를 위한 좋은 삶에 필요한 덕이다. Ricoeur(1996)는 자기 속에 있는 ‘결핍’은 오직 타자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으며, 친구란 바로 제 자신만으로 산출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제공하는 ‘다른 자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정은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듯이 타자로서의 자기인 친구 역시 존중하는 상호성의 이념에 근거한 것이다. 배려의 차원은 바로 타자와 함께하는 우정을 통해서 전개되며, 이것은 좋은 삶을 지향하는 자기 존중이 오로지 타자와의 대화적 차원으로 나아간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 존중은 타자와 함께, 타자를 위한 배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현되며, 이러한 배려는 오로지 자기 존중을 기초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Ricoeur(1996)는 배려의 개념을 자율과 타율의 관계, 그리고 주는 것과 받는 것과의 교환관계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거기서 배려라는 스펙트럼의 양 극에는 자기의 극과 타자의 극이 있다. 양극의 중앙에는 서로의 주고받음이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 우정이 있으며, 서로 주고받음의 교환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자기와 타자간의 두 가지 불균형 관계가 생긴다(Kim, 2001). 우선 명령하는 타자와 명령을 받는 자기간의 교류 속에서 타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의 배려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 명령의 주도권은 타자로부터 오며 자기는 명령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타자와 그것을 받는 자기간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성을 보완하는 자기 쪽의 응답은 바로 그러한 명령을 들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인정의 능력이다. 그러면 명령을 내리는 타자를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자기 쪽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종의 “선의(Gute)라는 자원들(Ressourcen)”으로서 타자에게 “호의적인 자발성”이다(Ricoeur, p.231). 호의적 자발성이란 바로 자기에게 정의를 따라 행동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타자가 지닌 권위의 우월성을 자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자기와 타자가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좋은 삶을 추구하는 자기를 존중하는 자만이 타자로부터 오는 명령과 교환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Ricoeur, 1996).

이렇듯 배려의 스펙트럼의 한 쪽 끝에는 ‘정의의 주관자’의 모습으로 명령하는 타자를 인정하는 배려의 유형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 끝에는 고통 받는 타자의 모습에 영향을 받는 배려의 유형이 있다. 여기서 타자의 고통은 단순한 물리적 통증이나 마음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존엄성의 파괴로 경험되는 할 수 있다는 행위능력의 감소”이다(Ricoeur, 1996). 즉 고통이란 자기존중의 근거로서의 행위능력의 감소로 인한 자기 존엄성 파괴에서 오는 경험을 의미

한다. 고통 받는 타자와 자기간의 이러한 관계에서는 자아가 주도권을 쥐게 된다. 자아는 타자의 고통을 공유하고자하는 바램에서 타자에게 연민(Mitleid)을 느낀다. 그러나 여기서 타자가 단지 이러한 동정을 받기만 하는 상황인가? 여기서도 일종의 평등한 관계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평등은 타자보다 행위의 능력이 큰 자기가 고통 받는 타자 자신의 연약함이 주는 모든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상태에 놓이게 될 때 일어난다. 타자가 자아에게 주는 것은 고통 받는 타자의 자신의 행위능력과 존재의 힘이 감소된 그 연약함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타자가 자기에게 주는 것은 바로 ‘나약함’(Zerbrechlichkeit)과 ‘사멸성’(Sterblichkeit)에 대한 깨달음인 것이다. 이러한 서로 주고받음으로 인해 평등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공감(Sympathie)이 형성되며,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동정(Erbarmen)과는 구분되는 것이다”(Ricoeur, 1996, p.232). 이처럼 주도권이 타자에게 있는 경우와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경우 모두에서 배려는 동등하지 않은 힘을 동등하게 하는 진정한 상호성을 깨닫게 한다. Ricoeur(1996)는 진정한 배려에 대한 위대한 시험은 바로 자기가 죽음과 싸우는 타자와 함께 할 때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배려의 스펙트럼의 중간에 위치한 우정에는 평등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타자로부터 오는 명령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의 평등성은 오직 타자의 권위의 우월성을 자기가 인정함으로써 회복된다. 반면에 행위의 주도권을 지닌 자기가 고통 받는 타자로부터 영향 받아 진정한 공감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나약함”과 최종적으로는 “사멸성”을 서로 깨달음으로써 자기와 타자와의 평등성이 회복되는 것이다(Ricoeur, 1996). 따라서 진정한 배려란 자기와 타자간의 비평등성 가운데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듯 Ricoeur(1996)은 배려의 포괄적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명령하는 타자와 친구로서의 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 받는 타자와 연관된 배려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 존중이 온전히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배려란 타자와의 대화적 차원을 전개하면서 좋은 삶을 소망하는 자기 존중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반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반성의 과정에서 배려는 자기 존중에 ‘결핍’(Mangel)이라는 의식을 덧붙여 결국은 타자에 대한 요구를 일깨우게 하며 자기 스스로를 타자들 가운데 하나의 타자로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자기 존중과 배려가 만나는 대화의 상호성의 차원은 “전환성”(Umkehrbarkeit)과 “비대체성”(Unvertretbarkeit), 그리고 “유사성”(Ähnlichkeit)이란 자의식 과정을 통해 열린다(Ricoeur, 1996). 우선 전환성이란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각각의 자기 자신이 나와 너 그리고 그나 그녀로 칭할 수 있는 역할의 교환이 가능하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비대체성이란 나의 인격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식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히 타자의 죽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타자의 삶이나 삶을 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와 마주하고 있는 타자에 대한 존중으로 응답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유사성이라는 의식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자를 위한 배려간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열매”(Ricoeur, 1996)라고 할 수 있다. 유사성에 대한 의식은 바로 타자를 나 자신으로 존중하는 것과 나 자신을 타자로서 존중하는 것이 등가가 되는 경우이며, 마치 나 자신처럼 너도 마찬가지로라는 바로 상호간의 신뢰에 의해 생긴다. 이러한 의식은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고 가치가 있음을 믿게 하는 자기 증언(Bezeugung)이 상호적 신뢰관계로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간호에서 이야기적 정체성과 배려의 윤리

### 간호에서 인격의 정체성과 이야기

지금까지 Ricoeur(1996)의 “타자로서의 자기”에서 전개된 인격의 정체성과 배려의 윤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야기로서의 인간이해 방식이 간호에서의 보살핌의 태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지 살펴보자.

간호철학자 Edwards(2001)는 간호에서 보살핌의 존재론적 토대는 한 개인을 삶의 이야기를 지닌 고유한 인격체로서 이해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인간존재에 대한 자기 관심과 염려와 배려를 통해 개인의 이야기가 구성되며, 이것은 곧 고유한 인격체로 자기가 형성되도록 하는 존재론적 보살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라는 인격의 정체성은 자신의 삶에서의 고착된 성격뿐만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추구하고 열망하는 삶의 가치와 목적을 투사하고 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다(Edward, 2001). MacIntyre(1984)에 따르면 “인격의 정체성은 이야기의 시작부터 중간, 종말에서 개인의 출생과 삶,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통일성 속에 놓여있다.”(p.205). 그러나 그 개인의 이야기가 그 개인의 실제 삶의 이력과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며,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태아 때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또한 한 개인의 죽음 후에 남은 사람들에게 의해 그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는 각자 자기의 삶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타자와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의 산물인 것이며(Edward, 2001), 거기서 구성된 인격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간호에서의 존재론적 보살핌인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야기를 통한 인격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과연 간호 실무에서의 보살핌의 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자. Meininger(2005)에 따르면 환자에게 삶을 이

야기를 하도록 용기를 주고 그 이야기에 경청하고 반응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을 함으로써 좋은 삶을 지향하는 자기존중 능력을 증진시킨다. 특히 병이나 질병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 있지만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의 저자가 될 수 있는 개인의 건강관리라는 맥락에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적 이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인격의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통일성을 지니는 데,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체험은 바로 이야기의 지속성과 통일성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야기적 인간이해는 그 사람이 지닌 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경험이 그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삶의 전체적이며 통일적인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Edwards, 2002). 즉 돌보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고통은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 가”를 이해하는 것이다(Gadamer, 1992). 돌보는 사람은 환자의 고통의 전 과정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여 표현하게 함으로써 위협받는 인격의 온전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Kong, 2005).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보는 사람은 환자의 삶을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함께 참여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해 나감으로써 고통의 경험이 고유한 인격의 파괴나 해체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자아인식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돌보는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 삶의 중요한 가치에 위협을 주는 고통을 이해하게 하고 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일깨워서 스스로 자기임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소망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끌어 가게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질병의 영향으로 인해 인격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좋은 삶을 향해 통일성을 지니는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보살핌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야기적 인간이해가 지닌 장점은 특히 인격의 정체성에 위협을 주는 장애나 혹은 만성 질병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여 자기를 지속하게 하는 이야기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좋은 삶을 향한 거시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Edwards, 2001).

그러나 자기 삶의 이야기의 저자가 될 수 없도록 타자화되어가는 인격체나 그리고 자아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잠재적 인격체로서 태아를 돌보는 태도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자기 삶의 이야기의 저자가 될 수 있는 일인칭적 관점을 잃어가고 있는 치매환자에 있어서 그들의 이야기의 정체성은 질병의 영향 때문에 단절되기 시작하며 점차로 그 통일성이 상실되어간다. 따라서 그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방식에 특별한 동기를 부여한다. 우선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파편적이거나 극단적으로 우연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속성과 통

일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의 정체성이 쇠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계획하는 전략은 그 개인의 이야기적 이해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는 것이다. 삶의 이야기를 매우 희미하게 기억하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그의 가정환경에서 그의 삶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실마리들, 즉 배우자 사진이나 그들이 아끼는 장식품 등에 의해 삶의 기억을 일깨워 그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단절되지 않고 파편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방법은 그를 가능한 그와 친밀했던 물건들에 예외시켜 있게 하고 새로운 환경과 낯선 것들을 줄이는 일이다. 따라서 이야기적 정체성이라는 의미에서 일인칭 관점이 소실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지속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그들의 이야기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삶의 근원을 향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친밀한 환경과 인간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간호 실무에서 자기 개념이 불확실한 잠재적 인격체로서 태아, 그리고 타자와 된 인격체나 죽어가는 환자나 식물 인간도 이야기를 지닌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들이 스스로 각자의 자기를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타자의 삶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타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야기되는 인격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 인격의 존중과 보살핌의 태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icoeur의 이야기적 정체성은 주체로서 인격뿐만 아니라, 타자와 된 인격을 보호해주고 존중해 주는 간호에서의 보살핌의 태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가능하게 한다(Schnell, 1999). 여기서는 특히 의식이 없는 환자의 생명과 죽음의 태도와 관련된 인격의 자기 존중과 보살핌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자. 만약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이나 뇌사상태에 빠져서 살 가망이 없는 경우의 환자의 인격을 어떻게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인가? 만약 그(그녀)는 의식이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예견하여 적극적 치료로 생명을 연장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생명에 대한 유언을 명시적으로 표현해 놓았다고 생각해 보자. 이러한 경우에 의료인이나 보호자, 친구 등은 그를 타자(3인칭)로서 만난다. 자기의 삶의 이야기에 속하는 유언은 일종의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서 '자기 지속'을 위한 약속이며, 이것은 타자로 만나는 의료인, 보호자와의 상호 신뢰 하에서 준수되는 자기 증언인 것이다(Schnell, 1999) 따

라서 돌보는 사람이 환자의 자기 지속을 위한 약속으로 '유언'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타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좋은 삶을 지향하는 '자기'로서 인격을 존중해 주는 보살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환자가 생명에 대한 유언을 명시적으로 남겨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환자의 인격을 존중할 것인가? 현재 그 환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자와 함께 한 자기의 삶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누구'임이 추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이것은 타자와 함께 한 삶에는 나의 "자기"를 말하는 타자가 항상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그 환자에 대한 자기성은 바로 그와 삶을 함께 한 가족이나 친구 등에 의해 구성된 이야기를 통해서 환자의 고착된 성격이나 생활습관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 그리고 죽음의 태도에 대한 삶의 통일성을 엮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와 삶의 역사를 함께 한 사람은 그의 삶의 이야기를 엮을 수 있는 공동의 저자가 될 수 있으며 환자의 인격의 정체성은 바로 타자와 함께 한 자기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Schnell, 1999).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사회 속에서 타자와 함께, 타자를 위해서 그가 추구하는 훌륭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능한 소망과 삶의 마지막 소원들이 표현되어진다. 이것이 환자의 인격의 정체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의 차원인 것이다. 특히 우정의 관계에 있는 친구는 그와 함께 경험했던 것, 스스로로 들었던 삶의 이야기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환자의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로 구성하여 죽음의 태도에 대한 자기 증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이야기의 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자기의사는 삶의 단편적 조각들이 이야기 속으로 구성되어 연합되고 조화를 이루게 된 것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추정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그 환자의 삶의 역사를 누가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가 구성되고 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 환자가 추구하는 좋은 삶에 비추어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Schnell, 1999).

그러면 돌보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경쟁하고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더 선호할 수 있는가? Meininger(2005)에 따르면 더 나은 이야기를 판단하는 일련의 규칙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가 있다. 우선 돌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서로 이야기 속 인물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 합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그녀)가 추구하고 기획했던 좋은 삶에 근거하여 인물의 정체성이 얼마나 통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해가 가능한가에 따라서 특정한 이야기를 선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환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존중해 주

는 것이 바로 환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존중해 주는 간호에서의 보살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실천적 지혜와 배려의 윤리

여기서 우리는 Ricoeur(1996)의 배려의 윤리에 근거하여 죽어가는 환자의 인격을 어떻게 실천적 지혜를 사용하여 배려할 것인가에 대한 보살핌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선 돌보는 사람이 생존의 가망이 없는 암말기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라는 도덕적 갈등의 사례에 대해 고찰해 보자. 이 사례에서 두 가지 극단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죽어가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일 능력이나 기대 혹은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그에게 순전히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면, 이것은 마치 환자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항하는 환자의 힘이 약화되어 환자의 고통이 더욱 극심하게 될까 봐 두려워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죽음에 대한 무의미한 싸움을 부추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천적 지혜의 역할은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보다도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개별성을 지닌 인격들에게 적합한 배려의 이름으로 각각의 인격들의 존경에 우선성을 제공”(Ricoeur, 1996)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편적인 도덕법칙이란 바로 Kant의 정언명법(Katetorisches Imperativ)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는 네 자신의 인격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그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Kant, 1963)

여기서 Ricoeur(1996)는 Kant의 도덕법칙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인간성에 대한 존경은 보편적 이성적 존재로서 인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인격의 타자성과 복수성이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비판한다. 따라서 그는 칸트의 도덕법칙에 따르기보다는 “인격들의 복수성과 타자성이 포괄적인 인간성의 이념에 의해서 무시되지 않길 바라는 배려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한다”(p.274)고 말한다. 우리의 실천적 지혜는 각각의 고유한 인격체에게 적합한 배려를 하기 위해 바로 좋은 삶을 지향하는 타자의 기대와 요구를 중심으로 한 상호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도덕법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따라야만 하는 요구와 타자의 기대가 충돌하는 갈등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좋은 삶을 지향하는 자기 존중에 근거한 타자의 기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죽어가는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돌보는 사람은 그가 추구하는 좋은 삶의 기대에 따른 행복과 고통의 관계에 대해 숙고하여 적합한 행위를 선택하는 실천적 지혜를 지녀야 한다. 즉 그에게서 자기 존중의 근거로서 좋은 삶의 상태인 행복이 무엇이며 그것이 고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숙고해 보는 것이다. Kemp(1988)에 따르면 행복이란 자유로운 인격들 간의 서로 주고받음이라는 일상적 실천이며, 바로 죽음을 수용하는 고통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주고받음이라는 행복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돌보는 사람이 죽어가는 환자와의 진정한 공감에 이르는 자의식의 과정은 바로 전환성, 비대체성, 그리고 유사성이다. 즉 진실을 말하는 대화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전환시켜보면서 자신과 똑같이 자유로운 인격체인 돌보는 사람과의 교류 속에서 행복의 기회를 지닐 수 있다. 진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돌보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은 서로 대치될 수 없는 각자의 인격의 고유성에 대해 깨닫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인간의 사멸성과 유약성에 대한 진실을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의 입장에 대한 유사성을 인식하고 진정한 공감에 이르게 된다. 돌보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간의 유약함과 사멸성에 대한 인식에 공감함으로써 진정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환자에게 행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자신의 현실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도덕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연민인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마다 적합한 판단을 하는 실천적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 사례는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는 태도에 있어서 좋은 삶을 지향하는 고유한 개별적 인격체의 자기 존중에 기초한 배려 윤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각각의 고유한 상황에 적합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결론

지금까지 Ricoeur의 이야기적 정체성과 그의 윤리적 입장을 살펴보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간호실천에서의 인격의 정체성과 보살핌의 윤리적 태도에 대해 논의하여 보았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간호학자들은 간호에서의 보살핌은 염려, 관심, 배려라는 인간의 자기이해라는 근원적 존재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환자 자신이 처한 실존상황을 이해하게 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해 준다고 하였다(Benner & Wrubel, 1989). 또한 보살핌은 상호 신뢰에 기초한 인간관계 속에서 연민이나 공감 등의 적극적인 정서적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것은 환자의 인격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지시켜주는 간호의 도덕적 이상이라고 간주되었다(Watson, 1988).



Ricoeur의 이야기적 정체성과 그의 배려의 윤리는 바로 위에서 간호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보살핌의 특성을 철학적으로 합당하게 근거 짓는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삶의 이야기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지닌 고유한 인격체로서 한 개인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통해 인격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게 하는 것을 간호에서는 '존재론적 보살핌'이라고 말한다. 특히 병이나 질병, 그리고 장애로 인한 고통에 대한 체험은 바로 인격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이야기의 지속성과 통일성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돌보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고통이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Gadamer, 2004)를 이해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환자가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삶의 중요한 가치에 위협을 주는 병이나 질병, 장애로 인한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일깨워 스스로 자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이야기를 통한 보살핌의 태도인 것이다.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보살핌은 바로 환자에게 인격의 정체성에 위협을 주는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좋은 삶을 향한 전망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간호 실무에서 도덕적 존재론이 불확실한 잠재적 인격체나 타자화 된 인격체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생명윤리와 관련된 중요한 보살핌의 과제이다. 돌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배아나 태아 그리고 식물인간이나 무의식 환자도 자기 개념이 형성되지 않고 자기를 투사하지 못하지만 과거와 현재를 지닌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기'의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 특히 '자기' 지속에 대한 약속으로 환자의 생명의 유언을 지켜주는 것이나 생명에 대한 유언도 하지 않은 채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는 환자의 인격의 정체성을 그와 삶을 함께 한 타자가 엮은 삶의 이야기를 해석하여 존중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Ricoeur의 이론에 근거하여 지지될 수 있는 보살핌의 윤리적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Ricoeur의 자기 존중에 기초한 배려의 윤리는 간호에서 인격의 개별성과 상호 대화적 관계를 존중하는 보살핌의 윤리의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각자의 인격의 고유성을 자각하면서 그로부터 얻는 인간 유약함과 사멸성에 대한 인식을 서로 상호 교환하는 공감의 과정을 통해 획득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Ricoeur의 윤리는 간호 실무에서 인간성의 이념이 아직 자신의 인격 속에 체현되지 않았거나 파괴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존중할 것인가에 대해 사려 깊은 숙고를 하게 한다. 그는 일인칭 '나'로서 칭해지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기뿐만이 아니

라, 바로 모든 인칭으로 불려질 수 있는 타자로서 '자기', 타자와 함께 타자를 위하여 좋은 삶을 지향하는 그러한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윤리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소박한 배려가 아니라 '좋은 삶'을 지향하는 타자의 기대와 소망에 비추어 상황의 고유성에 적합한 판단을 하는 실천적 지혜에 의한 비판적 배려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윤리적 사고는 신체를 가진 취약한 존재로서 인격의 온전함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 가까에서 항상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설득력 있게 요구되는 인격존중과 배려를 위한 보살핌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 References

- Benner, P., Wrubel, J. (1989). *The primacy of Caring: Stress and Coping in Health and Illness*. California: Menlo Park.
- Edwards, S. D. (2001). *Philosophy of nursing*, New York; Palgrave 2001.
- Fry, S. T. (1989). *Toward a theory of nursing ethics*, *ANS*, 11(4), 9-22.
- Gadamer, H. G. (2004). *Schmerz: einschätzung aus medizinischer, philosophischer und therapeutischer Sicht*, Heidelberg: Universitatverlag Winter.
- Gadow, S. (1987). Nurse and patient: The caring relationship. In A. Bishop & J. R. Scudder JR.(Eds.), *Caring, curing, coping: Nurse, physician, patient relationships*, Birmingham: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Gadow, S. (1989). Clinical subjectivity: advocacy with silent patients. *Nurs Clin North Am*, 24(2), 535-541.
- Gadow, S. (1996). Ethical narratives in practice. *Nurs Sci Quarterly*, 9(1), 8-9.
- Gadow S. (1999). Relational narrative: the postmodern turn in nursing ethics. *Schol Inquiry Nurs Pract*, 13(1), 57-70.
- Gastmans, D. (1999). Care as moral attitude in nursing, *Nurs Ethics* 6(3), 214-223.
- Heidegger, M. (1984). *Sein und Zeit*,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 Kant, I. (1963).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amburg: Felix Meiner.
- Kemp, P. (1988). *Ethics and Narrativity*, Rom: Aquinas. *Revista Internazionale de Filosofia*.
- Kim, J. H. (2002). *The moral philosophy of Paul Ricoeu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eog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 Knowlden, V. (1988). Nurse caring as constructed knowledge. In: *caring and nursing: Explorations in Feminist Perspectives*, Denver, Colo: University of Colorado Health Sciences Center.
- Kong, B. H. (2004). Nursing practice and caring attitude from the aspect of virtue ethics, *Pan-Korean Philosophy* 34, 83-108.
- MacIntyre, A. (1984).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eininger, H. P. (2005). Narrative ethics in nursing for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Nurs Philos*, 6(2), 106-118.
- Morse, J. M. (1990). Concept of caring and caring as a concept? *ANS*, 13(1), 1-14.
- Nerheim, H. (2001). *Die Wissenschaftlichkeit der Pflege*, Bern: Hans Huber.
- Prammer, F. (1999). Von der "naiven" zur kritischen Phronesis. In A. Breitling, O. Stefan & B. Schaaff(eds.), *Das herausgeforderte Selbst, Perspektiven auf Paul Ricoeurs Ethik*(pp.13-25). Würzburg: Konighausen & Neumann.
- Pellegrino, E. D. (1985). The caring ethic: The relation of physician to patient. In Bishop AH, Scudder JR (eds): *Caring, Curing, Coping: Nurse, Physician, Patient Relationships*. Birmingham, Al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Ricoeur. P. (1996). *Das Selbst als ein Anderer*, Munchen: Fink.
- Schnell. M. W. (1999). Narrative Identität und Menschenwürde. In A. Breitling, O. Stefan & B. Schaaff(eds.), *Das herausgeforderte Selbst, Perspektiven auf Paul Ricoeurs Ethik*(pp.117-129). Würzburg: Konighausen & Neumann.
- Watson, J.(1988). *Nursing: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 Yun, S. Y. (2003). *Philosophy of Paul Ricoeur* Seoul: Philosophy and Reality.

## A Philosophical Inquiry into Caring in Nursing - Based on Ricoeur's Narrative Ethics -

Kong, Byung-Hye<sup>1)</sup>

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Purpose:** This paper was aimed to inquire into Ricoeur's self -hermeneutics and narrative ethics, and apply it to personal identity constituting caring and care ethics in the practice of nursing. Its purpose is to provide a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caring in nursing. **Method:** According to Ricoeur's narrative identity, ontological caring was interpreted as personal identity constituting caring. His ethics were described as care ethics, which contributed to preserving and promoting the personal dignity of the client, as self in search for the good life in the nursing practice. **Results:** Narrative understanding of the client pointed to the ontological role of care in the constitution of personal identity. From an ethical aspect of the narrative, respect for personal identity and personal dignity of the client was crucial to an ethical caring attitude, promoting self-esteem in the nursing practice.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ed that Ricoeur's ethics could provide a philosophical basis for understanding ontological and ethical caring in nursing. This contributed to protection of the client from the threat of personal identity, as well as respecting their personal dignity.

Key words : Caring, Personal identity, Narrative ethics, Ontological caring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ong, Byung-Hy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375, Seosuk-dong, Dong-gu, Kwangju 501-759, Korea  
Tel: +82-62-230-6328 E-mail: bhgong@mail.chosun.ac.kr